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우 주 영**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교수

《요 약》

ADHD 아동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ADHD 아동에 관한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오히려 ADHD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창의적이면서도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성공한 아동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진 3~6학년 ADHD 아동 106명, 일반아동 101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는 Furman(1985)이 제작한 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NRI), 임정순(1993)이 제작한 학교생활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분석은 t test, ANOVA를 사용하여 ADHD 아동과 일반아동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ADHD 아동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대립, 우의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ADHD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교우와의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에 적응하는 정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ADHD라는 진단명으로 인하여 긍정적 자원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ADHD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부모-자녀관계, 학교생활 적응

1. 서 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이하 ADHD)는 Still이라는 의사가 1902년 『Royal College of Physicians』의 강의에서 자신이 관찰한 20명의 아동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었다. Still이 보고한

* 본 논문은 2007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wjy0207@kornu.ac.kr)

아동들의 특징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으며, 자신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때로는 잔인하고, 부정적이고,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다(Barkely, 1990)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자제력과 도덕적 통제능력의 결여(defects in moral control)라고 가정하였다.

주의력 결핍(inattention), 행동적 또는 인지적 충동성(impulsivity) 그리고 과잉운동증상(hyperactivity)의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ADHD 아동은 학령기 아동에서 2~14% 정도의 유병율을 가지는 매우 흔한 장애이며, 많은 공존 질환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장애를 보인다(Brown et al., 2001; Nolan et al., 2001)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ADHD 유병률은 7.6~9.6%로 나타났고(조수철, 신윤희, 1994; 채규만, 위지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 초등학교 아동 중 8.6%가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한 학급당 평균 3~4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이상복, 이상훈, 이호신, 1996). 조봉환과 임경희(2004)는 성, 학년, 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의 ADHD 출현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4.5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이 중소 도시나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출현율을 보고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아동의 2~9%가 이 장애를 보이며, 임상에 의뢰된 아동의 1/3~1/2정도가 ADHD를 단독으로 혹은 다른 장애와 함께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초등학교 아동들 중 10%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Barkely, 1990). 미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SM-IV)에서는 세부적으로 ADHD는 “주의산만 우세형(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 과잉행동-충동 우세형(predominantly hyper active-impulsive), 혼합형(combined type)”의 3가지형으로 나누어지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혼합형이 가장 많은 형으로 알려져 있다.

ADHD의 연구동향은 ADHD에 대한 개입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약물, 행동 수정, 심리치료, 부모훈련, think aloud 훈련 등의 개입 효과성에 대한 연구(강병철, 2005; 김도연, 2003; 박미정, 2004; 박영애, 2004; 송문화, 2005;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5; 안동현, 김세실, 한은선, 2004; 오현경, 2003; 오경자, 박난숙, 홍강의, 고려원, 1995; 우미경, 2002; 이영미, 2003; 이은희, 2000; 임혜정, 2005; Anderson, 1995; Sang et al., 2002)이다. 그리고 ADHD의 인지, 기질, 가족 특성의 연구(김봉년, 2002; 류현수, 2006; 박노암, 2001; 이영나, 2007; 하은혜, 1992; Healey & Rucklidge, 2005; Lara, 2005; Treuting & Hinshaw, 2001)와 척도개발에 관련된 연구(송동호, 정유숙, 이홍식, 1993; 오경자, 이혜련, 1989; Barkely et al., 1990; Harter, 1988)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DHD로 가장 많이 진단이 내려지는 학령기 연령인 7~12세 사이에 주요 핵심 증상과 이들의 기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각 연령별 특성에 대한 연구(신민섭, 박수현, 1997; 정영철 외, 2001; Hart et al., 1995)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ADHD 아동은 문장이해의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특히 10세 이후부터 주의산만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

났으며, 과잉행동 감소에도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언어와 운동발달, 우울과 불안 그리고 신체화의 감소가 나타났고, 비행행동의 감소와 사회관계의 향상이 있었으며, 정신증과 자폐증의 감소가 있었다. 이렇듯 ADHD 아동의 주요 핵심증상과 기능이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호전되고 있음(Barkley, Grodzinsky, & DuPaul, 1992; Biederman et al., 2000; Campbell et al., 1984; Sykes et al., 1971; 1972)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ADHD 아동의 부모들에게서 동일한 ADHD, 알콜리즘, 히스테리, 사회 병리적 요소들이 흔하게 존재하며, 친밀감이나 유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가족 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한다는 보고(이종범 외, 2002; Cantwell, 1972)도 있다.

또한 ADHD 아동의 부모는 일반 아동의 부모에 비해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양육 역할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무기력감,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부부갈등, 역기능적 가족관계, 분노나 좌절감, 우울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안연옥, 2001; 이신영, 1998; 최지연, 2001; Mash & Johnston, 1990; Stratton & Hammon, 1998)들이 있다. 그러나 ADHD 아동 부모 집단이 일반아동 부모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내지만, 다른 정신장애군 부모 집단간에는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자운 외, 2002; 안동현 외, 2001). 오히려 ADHD 아동 부모 집단은 일반 아동 부모 집단에 비해 부모로서의 효능감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는 연구도 있다.

한편, 부모와 교사가 우울이나 불안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보다 ADHD 아동의 문제 행동을 지각하는데 정확성과 일치성이 낮다는 보고(Green, Beck, Forehand & Vosk, 1980; Mitsis et al., 2000)가 있다. 비록 교사와 부모가 ADHD 아동의 산만성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과제에서 벗어나는 문제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로 ADHD 아동이 다른 또래 아동들에 비해 외부적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력결핍이 지속된 주의력에서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나 부모가 제시한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ADHD아동의 행동에 대한 지각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동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정보원의 확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ADHD 아동이 부정적이며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DHD 아동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부적응적이며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ADHD 아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ADHD 아동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문제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입방법에만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대해

비관적 견해(이영나, 2007; 이옥형, 신현오, 2001; Lara, 2005;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 ADHD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영나, 2007; 채규만, 1999; Cramond, 1994; Kelly & Romundo, 1995; Hallowell & Ratey, 1994; Guenther, 1995, Leroux & Levitt-Perlam, 2000; Shaw, 1992). ADHD 아동이 매우 창의적이면서 동시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성공한 아동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고, ADHD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동이 보일 수 있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이 무시되거나 간과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Cramond, 1995; Palladino, 1997; Weiss, 1997)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므로 ADHD 아동에 대해 다층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ADHD 아동의 속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ADHD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ADHD 아동에 대한 연구가 부정적으로 편파 되어 있기 때문에 ADHD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원과 기능들이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DHD 아동의 부정적인 면만 주목하여 아동의 긍정적인 부분이 발휘 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며 ADHD라는 진단명으로 인하여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ADHD 아동의 긍정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ADHD 아동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관계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환경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건강한 적응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은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2. ADHD 아동의 하위 성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9월 초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소아 정신과

(5곳)에서 임상심리전문가로부터 심리종합검사를 받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로부터 ADHD로 진단을 받은 아동 중 지능지수 80이상의(평균 하 이상) 초등학교 3~6학년 ADHD 아동 106명을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은 서울시,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3~6학년 중 지능 지수 80이상의 아동 10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Conner's ADHD 평가 척도를 교사에게 평정하게 한 후 ADHD 진단 분할점(cut-off score) 17점(오경자, 이해련, 1989)이상에 해당되는 아동은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동 중기 이후가 되어야 비교적 안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고 자아의 여러 가지 영역의 평가가 가능하고 자기 보고식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Harter, 1982)되었다.

연구대상자는 ADHD 아동 106명(남 93명, 여 13명), 일반아동 101명(남 62명, 여 39명)으로 자세한 연구대상 집단의 배경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집단의 배경정보

영역	구분	ADHD아동 (N=106)	일반아동 (N=101)	영역	구분	ADHD아동 (N=106)	일반아동 (N=101)
학년	3학년	39명(36.8%)	38명(37.6%)	지능	전체지능	109.34	105.92
	4학년	29명(27.4%)	28명(27.7%)				
	5학년	24명(22.6%)	23명(22.8%)				
	6학년	14명(13.2%)	12명(11.9%)				
성별	남	93명(87.7%)	62명(61.4%)	ADHD 성향	주의산만 우세형	29명 (28.35%)	·
	여	13명(12.3%)	39명(38.6%)		과잉-충동 우세형	41명 (38.7%)	·
					혼합형	33명 (31.1%)	·
부 업	무직	0명	2명(2.0%)	모 직 업	무직	45명(42.5%)	56명(55.4%)
	단순노동	0명	3명(3.0%)		단순노동	1명(0.9%)	0명
	반숙련직	1명(0.9%)	1명(1.0%)		반숙련직	1명(0.9%)	4명(4.0%)
	숙련직	4명(3.8%)	1명(1.0%)		숙련직	3명(2.8%)	0명
	판매직	19명(12.9%)	13명(12.9%)		판매직	9명(8.5%)	0명
	사무직	48명(47.5%)	48명(47.5%)		사무직	17명(25.5%)	25명(24.8%)
	관리직	8명(7.9%)	8명(7.9%)		관리직	9명(8.5%)	0명
	전문직	25명(24.8%)	25명(24.8%)		전문직	11명(10.4%)	7명(6.9%)

2. 측정도구

부모-자녀 관계 척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Furman(1985)의 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NRI)를 한종혜(1996)가 변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6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하위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대립, 우의가 있다. 응답방식은 5점 척도의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종혜(1996)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 α 는 어머니와의 관계 .91, 아버지와의 관계 .91이었고, 하위 변인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 α 는 .73~.93이었다. 자세한 하위영역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의 구조적·기능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순(1993)이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에의 적응, 학교규칙에의 적응의 네 가지 하위영역,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지향(2005)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 α 는 .70 이었다. 자세한 하위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69~.79였다. 자세한 하위영역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내용

부모-자녀관계 척도	
하위영역	내 용
사회적지지 (34문항)	결속력이 높으며 애정이 많고 서로 만족하며 상대를 인정해 주고, 잘 보살펴 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처벌/주도권 (12문항)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벌, 훈계, 꾸짖음을 많이 하거나, 이리저리 하라고 주로 지시하거나 결정해 보리는 관계를 의미한다.
친밀 (8문항)	서로 마음의 생각이나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대립 (6문항)	서로 뜻이 잘 맞지 않아 화를 내고 당황하거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투거나 논쟁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우의 (6문항)	같이 놀아 주고, 재미있는 곳에도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주는 관계를 뜻한다.

학교생활 적응 척도

하위영역	내 용
교사와의 관계 (8문항)	교사와 얼마나 조화롭게 지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교우와의 관계 (8문항)	학교에서 친구와 얼마나 협동적인 태도를 취하며 잘 어울리는가를 의미한다.
학교 수업에의 적응 (8문항)	성적과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학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이다.
학교 규칙에의 적응 (8문항)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 집단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사를 비롯하여 권위를 가진 인물들에게 얼마나 잘 수용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ADHD 아동의 경우 소아 정신과에 내원 시 부모와 아동에게 연구에 대한 일정, 소요 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소개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본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지능검사의 경우는 본 연구자와 임상심리사, 아동심리전공을 한 검사자 2인과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첫 번째 연구 문제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은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 ADHD 아동의 하위 성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실시하였다.

III. 결 과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에서 ADHD 아동(M = 131.6)은 일반아동(M = 135.5)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t=-1.239$, ns. 처벌/주도권에서 ADHD 아동(M = 31.21)은 일반아동(M = 32.75)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t=-1.466$,

ns. 친밀에서 ADHD 아동(M = 26.07)은 일반아동(M = 27.58)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t=-1.646$, ns. 대립에서 ADHD 아동(M = 19.86)은 일반아동(M = 20.34)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t=-0.753$, ns. 우의면에서 ADHD 아동(M = 21.01)은 일반아동(M = 20.84)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56$, ns.

<표 3>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차이

하위변인	ADHD 아동(N=106)	일반아동(N=101)	t
	M(SD)	M(SD)	
사회적지지	131.6(20.58)	135.5(23.27)	-1.239
처벌/주도권	31.21(6.71)	32.75(8.18)	-1.466
친밀	26.07(6.80)	27.58(6.21)	-1.646
대립	19.86(4.48)	20.34(4.56)	-0.753
우의	21.01(4.71)	20.84(4.88)	2.56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교우와의 관계에서 ADHD 아동(M = 27.85)은 일반아동(M = 27.21)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t=0.946$, ns. 학교 수업에의 적응에서 ADHD 아동(M = 28.49)은 일반아동(M = 27.84)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t=0.946$, ns. 학교 규칙에의 적응에서 ADHD 아동(M = 28.84)은 일반아동(M = 27.8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0.963$, ns.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ADHD 아동(M = 27.59)은 일반아동(M = 25.6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246$, $p < .001$.

<표 4>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하위변인	ADHD 아동(N=106)	일반아동(N=101)	t
	M(SD)	M(SD)	
교사와의 관계	27.59(4.25)	25.64(4.38)	3.246***
교우와의 관계	27.85(5.08)	27.21(4.73)	0.946
학교 수업에 적응	28.49(4.93)	27.84(4.75)	0.963
학교 규칙에 적응	28.84(4.93)	27.84(4.75)	0.963

*** $p < 0.001$

ADHD 아동의 하위 성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135.59),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128.36), 혼합형 ADHD 아동(M = 131.00)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0) =$

1.169, ns. 처벌/주도권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30.93),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31.39), 혼합형 ADHD 아동(M = 31.2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0) = 0.038$, ns. 친밀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26.96),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25.97), 혼합형 ADHD 아동(M = 25.30)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0) = 0.462$ ns. 대립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19.13),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19.90), 혼합형 ADHD 아동(M = 20.24)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0) = 0.618$, ns. 우의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21.34),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21.09), 혼합형 ADHD 아동(M = 20.57)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0) = 0.214$, ns.

ADHD 아동의 하위 성향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28.10),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27.63), 혼합형 ADHD 아동(M = 27.24)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1) = 0.316$, ns. 교우와의 관계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29.53),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28.31), 혼합형 ADHD 아동(M = 28.27)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1) = 0.368$, ns. 학교수업에 적응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28.16),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27.04), 혼합형 ADHD 아동(M = 28.39)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01) = 0.740$, ns. 학교규칙에 적응에서 주의산만 우세형 ADHD 아동(M = 29.20), 과잉-충동 우세형 ADHD 아동(M = 27.48), 혼합형 ADHD 아동(M = 29.03)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01) = 1.342$, ns.

<표 5> ADHD 아동의 하위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하위유형	ADHD 아동($n=103$)	
		<i>M(SD)</i>	<i>F</i>
사회적지지	주의산만우세형	135.59(21.71)	1.169
	과잉-충동우세형	128.36(18.84)	
	혼합형	131.00(21.52)	
처벌/주도권	주의산만우세형	30.93(7.11)	0.038
	과잉-충동우세형	31.39(7.00)	
	혼합형	31.21(6.38)	
친밀	주의산만우세형	26.96(7.22)	0.462
	과잉-충동우세형	25.97(6.52)	
	혼합형	25.30(7.02)	

변량원	하위유형	ADHD 아동($n=103$)	
		$M(SD)$	F
대립	주의산만우세형	19.13(4.83)	0.618
	과잉-충동우세형	19.90(3.84)	
	혼합형	20.24(4.93)	
우의	주의산만우세형	21.34(4.56)	0.214
	과잉-충동우세형	21.09(4.26)	
	혼합형	20.57(5.52)	

<표 6> ADHD 아동의 하위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하위유형	ADHD 아동($n=104$)	
		$M(SD)$	F
교사와의 관계	주의산만우세형	28.10(4.14)	0.316
	과잉-충동우세형	27.63(4.17)	
	혼합형	27.24(4.50)	
교우와의 관계	주의산만우세형	29.53(7.23)	0.368
	과잉-충동우세형	28.31(5.53)	
	혼합형	28.27(7.36)	
학교 수업에 적응	주의산만우세형	28.16(4.19)	0.740
	과잉-충동우세형	27.04(5.12)	
	혼합형	28.39(5.30)	
학교 규칙에 적응	주의산만우세형	29.20(6.04)	1.342
	과잉-충동우세형	27.48(4.15)	
	혼합형	29.03(4.77)	

IV. 논의 및 결론

최근 들어 ADHD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ADHD가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라는 인식이 아직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한 국내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이 장애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ara(2005)는 ADHD 성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유능감, 자기효능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이 환경에 부적응하게 되거나 2차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DHD 진단명으로 아동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여 199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ADHD 아동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ADHD 아동의 부주의(inattention)는 쉽게 산만해지고 해야 할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빈번하게 다른 활동으로 전환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아이디어가 많고 폭 넓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Garmegy, 1985; Weiss, 1997). 내적 사고와 마음속에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상상들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작업과 실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융통성 있는 작가나 과학자처럼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Cramond, 1995; Hartman, 1997; Show, 1992; Torrance, 1972).

ADHD 아동의 과잉활동(hyperactivity)은 과도하게 침착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지를 못하며, 뛰어다니고 기어오르며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높은 에너지 수준 또는 정서적 흥분성은 오히려 활력이 있고 놀이성이 풍부하고 열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 과잉 활동을 분출하는 생명력,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Lara, 2005; Piechowski, 1985).

ADHD 아동의 충동성(impulsivity)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순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 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활동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일상적인 것에 지루해 하기에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추구하며 재미있는 자극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성향이 있다.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경직되지 않으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고 신기한 것에 대해 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조수철, 2005; Barron, 1988; Piechowski, 1985).

하지만 ADHD 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시 자긍심이 낮고 자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미숙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러 상황에서 많은 실패 경험으로 정상 아동에 비하여 낮은 자긍심과 자아개념을 보이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정대영, 1996). 또한 ADHD 아동들은 학교 생활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어머니, 교사, 또래 등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Barkley, Dupaul & McMurphy, 1990)한다.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며 문제아로 인식이 되어서 그 결과 부정적인 평가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와 우울감등의 이차적인 문제를 일으킨다(Campbell, 1990). 그래서 본 연구는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ADHD 아동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대립, 우의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먼저,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를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애정이 많고, 서로 만족하며, 상대를 인정해 주고, 잘 보살피 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도와주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도움을 자주 주며,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

고 인정하여 주고, 갈등이 있을 때 처리방식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를 처벌/주도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해서 안되는 일을 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벌, 훈계, 꾸짖음을 많이 하거나, 이리저리 하라고 주로 지시하거나 결정해 버리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는 자신이 잘 못했을 때 벌을 많이 주지 않고, 자신에게 강요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상과 벌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모의 훈육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 수용도와 상관이 높다(김경희, 1992; 이주리, 1994)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합리적인 지도는 아동의 활동성, 협력성, 안정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 사회적 능력 영역과 가장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박범실, 1987)는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서로 마음의 생각이나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적인 느낌을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알리는 관계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애정 및 결속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 가치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자아에 대한 개념을 잘 형성케 하는 중요한 요인(Crouter et al., 1990)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애정적 관계와 강한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연구(이경님, 2002; Cernkovick et al., 1987; Gove et al., 1987)와 연결된다.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ADHD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서로 뜻이 잘 맞지 않아 화를 내고 당황하거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투거나 논쟁하는 등의 관계로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DHD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의견이 달라도 논쟁하거나 맞서는 정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모와 대립적 관계로 지각하게 되면 아동의 학업 역량과 행동 수행 역량에 매우 부적인 상관(한종혜, 1994)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부모의 통제 유형과 양육태도와도 관련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권위적일 때 아동도 높은 적응력, 독립성, 자기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Baumrind, 1972)와 연결된다.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를 우의적인 관계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같이 놀아주고, 재미있는 곳에도 같이 가서 시

간을 보내 주는 관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DHD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놀거나 재미있게 지내는 때가 많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참여 정도와 반응이 아동의 학업 능력 향상과 매우 관련이 높다는 연구(Bradley & Caldwell, 1980)결과를 뒷받침한다.

ADHD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다루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긍정적 수용과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ADHD 아동의 스스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을 높여 주고 이후의 주변 환경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ADHD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지내지 못한다고 지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교우와의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에 적응하는 정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ADHD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사와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마음속의 비밀을 교사와 나누고 있지 않으며 선생님이 자신을 귀여워하거나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딱딱하고 명령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는 아동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이외의 최초의 성인이며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학업 성취 뿐 아니라 성격 형성, 사회성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김중서 외, 1991)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벌을 많이 사용하면, 아동은 긴장, 공격성과 불안을 나타내며, 교사가 과잉 허용형인 경우는 아동이 통제력이 적으며, 비일관형인 경우는 공격성을 조장하게(이영석, 1993)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은 온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협조적인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Spaulding, 1964)이고,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감을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교사에게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발견하여 이를 적절한 행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ADHD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교사를 도와주는 여러 방안이 제시(Horner et al., 1991)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ADHD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지연하는 방법(delayed responding), 동기부여, 자신이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internalization of rules)에 대해 강화하고 교정해주는 방법, 특정행동을 조절하여 집중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교우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은 친구와 협동적이며 잘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터놓고 이야기하며,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며,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지지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로 미루어보아, ADHD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친구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배척이나 소외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ADHD 아동이 가지는 취약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학교 수업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ADHD 아동은 성적과 학업 성취도 면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DHD 아동은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즐겁고, 수업시간이 유익하고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학교에서의 성적과 학업 성취는 이후의 입시 또는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ADHD 아동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좌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를 초래(이미라, 2000)하는 취약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학교 규칙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은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 집단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으며 권위 있는 인물이 잘 수용된다고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DHD 아동은 교실에 질서를 잘 지키고 조용히 생활하며,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 통행을 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당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학교 시설물을 조심히 사용하며,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였다. 실제 교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학습 성적과 과제완성도 그리고 정확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ADHD 아동이 흔히 가지고 있는 주의력과 충동조절, 운동량뿐 아니라 또래관계, 권위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문제, 비행, 숙제를 끝내지 못하거나 학습기능이 부족한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ADHD 아동의 치료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DHD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적응을 종합하여 보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교우와의 긍정적인 관계, 수업에의 적응, 학교 규칙에의 적응 등의 하위요인이 ADHD 아동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며, 바꾸어 말하면 상당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은 ADHD 아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쉬운 비행, 행동장애, 중독성향 등의 위험요소를 중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셋째, ADHD 아동의 하위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SM-IV에서 ADHD의 특성에 따라 주의산만 우세형, 과잉-충동 우세형, 혼합형의 3가지 하위 성향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ADHD 아동의 진단

은 주의력 유지(sustained attention), 활동수준(activity level), 그리고 충동성 억제(impulse control)와 관련된 문제들을 준거로 한다. 이와 같은 특성들이 같은 나이 또래 집단의 정상적 행동 패턴 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며, 즉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이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들의 약 50% 정도는 만 4세 이전에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개는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과 함께 행동상의 문제가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핵심증상의 호전과 실행기능이 발달하면서 정서적 안정성과 문제행동의 감소, 현실적인 사회관계의 향상 등의 결과(정영철 외, 2001)를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ADHD 아동의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ADHD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지각에서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생활 적응에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 실패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DHD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지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ADHD 아동이 겪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박지원, 1985; 조남근 외, 2001)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에 모태가 되는 자원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비차별적, 비대립적(수용), 친밀(결속력), 우의(유대감)가 ADHD 아동이 가지는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성향에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조화롭게 지내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교사는 청소년기의 비행 및 우울의 억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부적절할 때 교사의 기능이 비행의 발생을 억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대하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업성취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구자은, 2000; 최지은 외, 2003; 임유진, 2001)을 미친다. 교사와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학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생은 교사와의 관계를 매개로 한 학습에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되는 결과(계선자 외, 2001)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지원책, 정보제공 그리고 ADHD 아동이 발생시키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DHD라는 진단명으로 인하여 긍정적 자원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ADHD 아동의 긍정적 자원을 향상 시키며 사회적 상황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ADHD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 이외에도 앞으로 연구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ADHD 아동의 자

기보고와 견해에 근거한 결과이어서, 부모 또는 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나, 학업성적 등의 다양한 측면과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병철 (2005).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만족도. **대학가정학회지**, 39,(2), 57-73.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1992). 부모의 온정, 통제, 권위와 아동 행동의 인과적 모형 개발. 목포대학교논문집.
- 김도연 (200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인지행동 놀이치료, 부모훈련병합치료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년 (2002). 경증 역치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특성에 관한 지역사회기반연구. **신경정신의학**, 41, 110-122.
- 김자윤, 안동현, 고복자, 이영교, 이효경, 황혜순 (2002). 소아정신과 환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지지체계. **신경정신의학**, 41(6), 1130-1141.
- 김중서, 이영덕, 정원식 (1991). **최신 교육학 개론**. 과학교육사.
- 류현수 (2006). 정서지능 수준에 따른 유머 활동 경험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유머 특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노암 (200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정의적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정 (2004). **토큰 강화 기법이 ADHD 아동의 학습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 (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2004). **아동중심 행동계약이 ADHD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수현 (199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신경심리학적 평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 217-231.
-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와 부모 훈련 병합의 효과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6, 65-73.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여성**, 8(1). 69-81.
- 송동호, 정유숙, 이홍식 (199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행동 특성 : 과활동성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성에 따른 비교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4, 106-113.
- 송문화 (2005). **집단게임놀이가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동의 실행 기능, 충동성,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현, 김세실, 한은선 (2004). **주의력결핍 장애 아동의 사회기술 훈련**. 학지사.
- 안동현, 김자윤, 고복자, 사승언, 이상은, 이영교, 이효경, 황혜순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아동의 부모에서의 양육스트레스. **정신건강연구**, 20, 128-136.
- 안연옥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 박난숙, 홍강의, 고려원 (1995). 주의력결핍 과잉활동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와 부모훈련을 통한 행동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임상**, 14(1), 1-14.
- 오경자, 이혜련 (1989). 주위력결핍 과잉행동증 평가도구로서의 conners 평가척도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임상**, 8(1), 135-142.
- 오현경 (2003). **Think Aloud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사회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미경 (2002). **자기통제 훈련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유아의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복, 이상훈, 이효신 (199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행동지도 방법**.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영 (199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특성-고과잉행동아동, 저과잉행동아동, 정상아동의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 (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미 (2003). **ADHD 아동의 통합 놀이치료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나 (2007).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유능감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석, 이경영 (1993). **유아 사회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이옥형, 신현오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37, 193-218
- 이은희 (2000).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 박순재, 정성덕, 김진성, 서완석, 배대석 (2002). 학습장애를 동반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임상적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8(2), 271-281.
- 이지향 (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유진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정 (2005). **학령기 ADHD 아동에 대한 사회기술 훈련 및 부모훈련의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대영 (1996). **Myklebust 행동 평가 척도에 의한 학습장애아의 행동 특성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철, 이종범, 박형배, 정성덕, 정형모, 사공정규 (200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연령에 따른 특성비교. **생물치료정신의학**, 7(1), 137-146.
- 조남근, 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1). 91-111.
- 조봉환, 임경희 (2004).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15(4). 729-746.
- 조수철 (2005). **산만한 우리 아이 어떻게 가르칠까?**. 서울 : 샘터

- 조수철, 신윤희 (1994). 과단적 행동 장애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 141-149.
- 최지연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채규만 (1999). 아동의 학습장애와 ADHD 진단과 치료적인 접근. **임상심리학회 1차 Workshop**.
- 채규만, 위지희 (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심리, 사회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3(2), 397-416.
- 하은혜 (199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의 약물치료에 따른 모자 상호행동과 인지 행동적 증사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 (1994). 아버지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 및 우울성과의 관계. **인간발달학회지 창간호**.
- 한중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Washington DC, pp85.
- Anderson, D. L. (1995). A comparis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maternal responsibility problem solving with ADHD/ODD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6(1), 514.
- Barkley, R. A. (1990).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Pergamon Press.
- Barkley, R. A., Dupaul, G. J., & McMurray, M. B. (1990).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attention disorder with and without hyperactiv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75-789.
- Barkley, R. A., Grodzinsky, G., & DuPaul, G. J. (1992). Frontal lobe functions in 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and without hyperactivity : A view and research report. *J Abnorm Child Psychol* 20, 163-188.
- Barron, F. (1988).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39-476.
- Baumrind, D. (1972).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iederman J, Mick E, & Faraone S. V. (2000). Age dependent decline of symptom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impact of remission definition and symptom type. *Am J Psychiatry* 157, 816-818.
- Brown, R. T., Freeman, W. S., Perrin, J. M., Stein, M. T., Amler, R. W., Feldman, H. M, Pierce, K, & Wolraich ML (2001). Prevalence and assessment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primary care setting. *Pediatrics*, 107(3), 43-46.
- Bradley, R., & Caldwell, B. (1980). The relation of home environment, cognitive competence and IQ among males females. *Child Development*, 51, 1140-1148.
- Campbell, S. B. (1990).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Guilford.
- Campbell, S. B., Breaux, A. M., Ewing, L. J., & Szumowski, E. K. (1984). A one-year follow-up study of parent referred hyperactive preschool children. *J Am Acad Child Psychiatry*, 23, 243-249.
- Cantwell, DP (1972). Psychiatric illness in the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rch Gen Psychiatry* 27, 414-417.
- CernKovich, S. A., & Giordano, P. 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1.

- Cramond, B.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rea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The Journal of Creativity Behavior*, 25(3), 193-210.
- Crouter, A. C., MacDermid,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Furman, W. & Duane Buhrmester.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Stevenson, J. D.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gamon Press, 213-233.
- Gove, W. R., & Cruchfield, R. D. (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Quarterly*, 23, 301-319.
- Green, K. D., Beck, S. J., Forehand, R., & Vosk, B. (1980). Validity of teacher nomina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8, 397-404.
- Guenther, A. (1995). *What educators and parents need to know about ADHD, creativity and gifted students (Practitioners' guide A9814)*. Storrs : The National Centre on the Gifted and Talented University of Connecticut.
- Hart, S. (1988).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Revision of the competence perceived scale for children : Manual*. University of Denver.
- Hart E. L., Lathey B. B., Loeber R, Applegate B, & Frick P. J. (1995). Developmental change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boys :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J Abnorm Child Psychol* 23, 729-749.
- Hartman, T. (1997). *Attention Deficit Disorder: A Different Perception*. Grass Valley, Calif : Underwood Books.
- Healey, D., & Rucklidge, J. J. (2005). An exploration into the creative abilities of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8(3), 88-95.
- Hallowell, E. M., & Ratey, J. J. (1994). *Driven to distraction: Recognizing and coping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New York : Simon & Schuster.
- Horner, R. H., Albin, R. W. & O'Neill, R. E. (1991). Supporting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evere challenging behaviors. In *Interventions for Achievement and Behavior Problems*. Stoner, G. Shinn M., R. & Walker, H. M. (eds). Silver Spring: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269-287.
- Kelly, K. & Ramundo, P. (2005). *You mean I,m not lazy, stupid, or crazy?-A self-help book for adults*. New-York : Scribner.
- Lara, H. W. (2005). *The Gift of ADH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Leroux, J. A., & Levitt-Perlman, M. (2000). The gifted child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 An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challenge. *Roper Review*, 22, 171-176.
- Mash, E. J., &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13-328.
- Mitsis, E. M., MaKay, K. E., Schulz, K. P., Newcorn, J. H., & Halperin, J. M. (2000). parent-teacher concordance for DSM-IV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a clinic-referred sample. *Journal of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9, 308-313.
- Nolan E. E., Gadow K. D., & Sprafkin J. (2001). Teacher reports of DSM-IV ADHD, ODD, and CD symptoms in school childre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0(2), 241-249.
- Palladino, L. J. (1997). *The edison trait*. New York: Times Books.

- Sang, B., Yu, J., Zhang, Z., & Yu, J., (2002). A comparative study of the creativity thinking and academic adaptive of ADHD and normal children. *Psychological Science*, 25, 31-33.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haw, G. A. (1992). Hyperactivity and creativity: the tactic dimension.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30(2), 157-160.
- Spaulding, R. L (1964). Achievement, creativity and self concept correlates of teacher-pupil transactions in elementary schools. In C., B. Stendler (Eds.) *Readings in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2nd ed.)*, NY ; Harcourt, Brace & World. Inc.
- Sykes, D. H., Douglas V. I., Weiss, G., & Minde, K. (1971). Attention in hyperactive children and the effect of methylphenidate. *J Child Psychol Psychiatry* 12, 129-139.
- Sykes D. H. , Douglas V. I., & Morgenstern, G. (1972). The effect of methylphenidate on sustained attention in hyperactive child. *Psychopharmacologia*, 25, 262-274.
- Stratton, C. W., & Hammon, M. (1998). Maternal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s to life stress,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3), 299-315.
- Torrance, E. P. (1996). *Creativity in the classroom : what research says to the teacher*. Washington D.C.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Treuting, J. J., & Hinshaw, S. P. (2001).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boy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ssociation with comorbid Aggression and Explanatory attributional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1). 23-39.
- Weiss, L. (1997). *ADD and creativity*. New York : Taylor Trade Publishing.

A Study On the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and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Woo, Ju-Young

Division of Rehabili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Recent studies has focused on the negative and clinical aspect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s the prevalence of ADHD is increasing. Some studies report that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re more creative more successful than normal children. Therefore this paper is to explore if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the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of their counterparts, thus if there exists any difference between adaptive behaviors of the two groups. The 101 subjects are normal children who are of above average intelligence level and between third grade and sixth grade. The used instruments are Furman(1985)'s 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NRI) and Lim Jung-Soon's School Behavior Test. To compare children with ADHD and their counterparts, T-test ANOVA is employ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s that there exist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children with ADHD and their counterparts in social support, punishment/dominance, closeness, conflict, friendship.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friendship, school learning, school behaviors, but children with ADHD are not likely to have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teachers. The positive resources of children with ADHD shouldn't be neglected due to disability label. This study seem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rograms that can help successful adaptation.

Key words: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school adaptation

논문 접수: 2007. 4. 27 심사 시작: 2007. 5. 10 게재 확정: 2007. 6. 25